

LPG, 3월 공급가격 4-5% 인상

SK가스, 프로판가스 kg당 54-65원 ... E1은 58원 올려 1145원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기업인 SK가스와 E1은 3월 LPG 공급가격을 kg당 58.00-65.14원 인상한다.

SK가스는 3월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 가격을 kg당 1150.82원으로 2월보다 65.14원(5.9%) 올리게 된다.

자동차용 부탄가스 가격은 kg당 1545.21원(리터당 902.40)으로 65.14원(4.4%) 인상한다.

E1은 프로판가스 가격을 kg당 1145원으로 58원(5.07%), 부탄가스 가격은 1539원(리터당 898.7원)으로 58원(3.9%) 올린다.

가스 시장 관계자는 “2월 국제 LPG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었지만, 환차익 감소가 국내 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LPG 수입기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LPG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2>